

# 中唐 朱慶餘 시가의 주제 분석

배다니엘\*

## 目 录

- I. 서론
- II. 朱慶餘 시가의 주제 분석
  - 1. 개인의 비감과 감탄 서술
  - 2. 진솔한 교류를 통한 우정의 가창
  - 3. 유람을 통한 한아한 시심의 고양
- III. 결어

## I. 서론

中唐 후기에 활약한 朱慶餘(생졸년 미상)는 字가 可久이며 越州(浙江 紹興)人이었다. 일찍이 邊塞를 유람한 적이 있으며 寶歷 2년에 進士에 급제하기는 했지만 仕途가 평탄하지는 못하였다. 『唐才子傳』 권6에 “朱慶餘는 字가 可久로 字로써 알려졌으며 閩中人이었다. 寶歷 2년에 裴休가 주관한 시험에서 進士에 급제하였고 秘書省校書에 제수되었다. 張籍 시의 지혜를 얻어 평탄한 기운 속에 절묘한 뜻을 담았고 시인들 중에 뛰어난 이었으며 당시에 文名이 있었다. 시집 한 권에 전하고 있다.(朱慶餘, 字可久, 以字行, 閩中人. 寶歷二年裴休榜進士及第, 授秘書省校書. 得張水部詩旨, 氣平意絕, 社中哲匠也. 有名當時. 集一卷. 今傳.)”라는 언급을 통해 그가 張籍을 비롯한 당시 문인들에게 인정 받으면서 문명을 얻었던 시인이었음을 기록해놓고 있다.<sup>1)</sup>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 중국지역 전공 교수

1) 『唐才子傳』의 이 기록에 대해 施蟄存은 『唐詩百話』(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9.) 제 530쪽에서 “『唐才子傳』却說: ‘慶餘, 字可久, 以字行.’ 這顯然是錯了. 如果他字可久, 而以

朱慶餘의 작품은 『新唐書藝文志』에 「朱慶餘詩集」 1권이 저록되어 있고 『全唐詩』 卷514와 卷515에 총 168題 177首의 시가 전해진다. 『全唐詩』에 실린 시를 대상으로 주제와 제재에 따른 분류를 가해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주제 | 詠懷 | 邊塞 | 禪道 | 寫景 | 行旅 | 詠物 | 閑寂 | 交友 | 酬贈 | 送別 | 총   |
|----|----|----|----|----|----|----|----|----|----|----|-----|
| 편수 | 22 | 4  | 14 | 17 | 10 | 6  | 10 | 18 | 32 | 44 | 177 |

작품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지닌 것은 교우, 수증, 송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유시로 전체 작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교유시를 통해 그가 관직에서 득의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여러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며 창작에 임했던 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張籍과는 「閩意獻上張水部」, 「酬朱慶餘」, 「上張水部」 등의 작품을 주고받은 경력이 있어 『唐才子傳』 권6에서 張籍과의 연관성을 주목한 언급이 근거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張籍이 사회현실을 다룬 樂府詩를 다수 창작했던 것에 비해 朱慶餘는 개인 一身에 관한 시를 많이 창작한 경향이 있으니 이점은 비교가 된다 하겠다.<sup>2)</sup> 그밖에 朱慶餘의 작품을 보면 사경, 행려, 영물 등 자연

字行, 那么他應以朱可久這個姓名傳于後世了.”라고 하여 “그가 字로 알려졌으면(以字行)” ‘朱可久’로 세상에 전해졌을 것이기에 이 설은 착오라고 하였다. 또한 그의 본적이 ‘閩中’이라는 설에 대하여는 “『唐才子傳』說他是‘閩中人’, 而『全唐詩小傳』却說他是‘越州人’. 看來應以『全唐詩』所記爲是, 因爲張籍和姚合都有送朱慶餘歸越州的詩.”라고 하여 張籍과 姚合의 시 중에 朱慶餘가 越州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있기에 ‘閩中’이 본적이 아니고 ‘越州’라고 하였다. 실제로 姚合의 작품에 「送慶餘越州歸觀」, 張籍의 작품에 「送慶餘歸越」이 있어 이 설은 합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밖에 “關於他登第的年代, 『唐詩紀事』說是‘登寶應進士第’. 寶應是肅宗年號, 其時張籍還沒有出生, 顯然是寶歷之誤.”라고 하여 『唐詩紀事』에서 그의 등제에 관하여 “登寶應進士第”라고 기록하였지만 ‘寶應’은 肅宗의 연호이므로 당시에는 張籍이 출생하지 않은 시기라 ‘寶歷’의 오기라는 고증을 가하고 있어 각각 참고가 된다.

2) 『唐才子傳』에서 朱慶餘에 대해 “當時有名”이라는 평을 가하기는 했으나 朱慶餘와 친분이 있었던 姚合의 『極玄集』이나 韋莊의 『又玄集』에 朱慶餘의 작품이 실리지 않은 것이

시 계열이 교유시 다음을 잇는 숫자를 접하고 있고, 閑寂과 詠懷, 禪道 등 개인적 취향을 담은 내용도 일정 부분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朱慶餘의 작품과 역대 평어를 통해 朱慶餘가 張籍 시의 학습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시가를 창작하였고 近體의 창작에 공을 기울였으며 그 속에 清新한 기운을 담고자 노력했던 시인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宋 劉克莊은 『後村詩話』 後集에서 朱慶餘에 대하여 “張洎가 項斯 시에 서문을 달면서 말하기를 ‘元和 중에 張籍은 律格의 시를 지음에 清麗하면서도 쉽고 뜻이 깊어 교묘한 의식으로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字意가 맑고 심원하였다. 오직 朱慶餘 한 사람만이 그 뜻을 얻어 후대에 전하니 任蕃, 陳標, 章孝標, 司空圖 등이 모두 그 문하라 할 수 있다.(張洎序項斯詩云: 元和中, 張水部爲律格, 清麗淺切, 而巧思動人, 字意清遠, 惟朱慶餘一人親受其旨, 沿流而下, 則有任蕃、陳標、章孝標、司空圖等, 咸及門焉.)”라고 평한 바 있다. 朱慶餘의 시가 ‘清麗’하면서도 ‘清遠’한 운치를 지녔고 후대에 미친 영향력을 지대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역대 문인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朱慶餘의 작품 중 「閨意獻上張水部」, 「早梅」, 「宮詞」 등 일부 시가에 국한된 기술과 평가를 가하여 놓고 있어 그에 대한 조망이 전반적이지 못했음을 느끼게 한다.<sup>3)</sup> 朱慶餘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까지 미흡한 상태이며 몇 편의 논문 역시 부분적인 조망에 그친 감이 있어 그의 작품 전체에 대한 조망, 주제 분석, 문학적 상관관계, 唐代 문단에서의 위상과 후대에 대한 영향과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아쉬운 상황이라 하겠다.<sup>4)</sup>

나 韋毅의 『才調集』에 「惆悵詩」 한 편 만이 실린 것은 朱慶餘의 작품이 개인 일신에 관한 서사를 한 것이 많았음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3) 역대 문헌 중 計有功의 『唐詩紀事』에는 朱慶餘의 시 중 「閨意獻上張水部」, 「酬朱慶餘」가 실려 있고, 高棅의 『唐詩品彙』에는 「宮中詞」, 「閨意獻上張水部」, 「西亭晚宴」, 「盧江途中遇雪」 등의 4수가 실려 있으며, 李攀龍의 『唐詩正聲』에는 「宮中詞」 1수, 沈德潛의 『唐詩別裁』에는 「南湖」 1수, 蘅塘退士의 『唐詩三百首』에는 「宮詞」, 「閨意獻上張水部」 2수가 각각 실려 있어 역대 문헌에서 예거한 그의 작품은 몇 편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朱慶餘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대체로 미흡한 상황으로 郭育豐, 「朱慶餘詩歌研究」(新疆

본고는 中唐에서 晚唐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관직에서 득의하지 못한 채 仕途와 일신의 욕망 사이에서 창작에 임했던 朱慶餘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그의 시의 주제에 따른 내용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현실과 개인 의지의 부조화 속에서 일개 군소문인으로 문학에 참여했던 朱慶餘의 창작세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中唐 문인의 작품세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데 있어 한 축을 이루는 작업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朱慶餘 작품의 전반적인 조망을 토대로 작품 속에 담긴 서정과 고뇌, 교우관계와 친우에 대한 의식, 자연미감의 묘사 양상 등을 파악하는 작업은 朱慶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문학적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II. 朱慶餘 시가의 주제 분석

朱慶餘가 과거를 위해 入京한 후 다양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의 유명 문인이던 張籍, 賈島 등과 교류한 이력도 작품 곳곳에 나타나지만 이들과 서로 영향관계에 있기는 했어도 작품 창작의 성향이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張籍이 현실을 반영한 樂府詩를 다수 창작하였고, 賈島가 ‘苦吟’을 토대로 ‘憤世嫉俗’의 내용을 담은 세미한 풍격의 작품을 많이 창작했던 것에 비해 朱慶餘는 개인의 서정을 진솔하게 서술하거나 청아한 필치를 발휘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발견된다. 『全唐詩』에 실린 朱慶餘의 시 168題 177首를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지녔던 서정과 고뇌,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우정의 서사, 자연을 추구하거나 한거에 대한 흥취를 서술한 것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상의 주

師範大學碩士論文, 2006. 4.) 논문을 제외하고는 연구물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郭育豐, 「朱慶餘詩歌研究」에서는 朱慶餘의 시를 분석하면서 “1.得交于賈島, 受知于張籍”, “2.心態之平和, 風格之清遠” 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朱慶餘와 賈島, 張籍 간의 상관관계, 朱慶餘의 심리상태와 작품의 풍격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분류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제와 연관된 구분 하에 朱慶餘 시가가 지닌 면모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개인의 비감과 감탄 서술

朱慶餘는 일생 중 穆宗 長慶 연간에서 敬宗 寶歷 元년에 이르는 사이에 특히 많은 창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작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朱慶餘는 고향 越州를 떠나 長安에 머물다 寶歷 2년에 진사 급제한 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시간 長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長安을 기점으로 夏口, 江州, 汴州, 湖州 등지를 유람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그가 長安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은 과거 준비를 비롯한 관직 추구하고 중앙 문인들과의 교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朱慶餘는 원하는 관직에 오르지 못했기에 심리적인 비애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시가 은연중에 회한과 비감을 함유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가 개인의 비감과 감탄의 심리를 서술한 내용은 여러 시가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詠懷詩, 禪趣나 仙道를 노래한 시 중에서 몇 수의 작품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향 越州를 떠나 오랜 시간 長安에 머물며 정계 진출을 희망해 보았지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심리적 한계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朱慶餘를 비롯해 그와 함께 교분을 나누었던 賈島, 姚合 등 中晚唐의 ‘가난한 시인(寒士詩人)’들은 ‘苦吟’의 시풍을 추구하거나 곤궁한 현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6)</sup> 관직으로의 진출이 어려웠던 현실은 朱慶餘로 하

5) 朱慶餘의 생평은 생졸년을 비롯하여 알려진 바가 별로 없으나 여러 시인들과의 관계를 통의 시문과 생평의 繫年을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郭育豐, 「朱慶餘詩歌研究」(新疆師範大學碩士論文, 2006. 4.)의 부록 편에 주경여의 시와 연관된 행적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6) 長慶 3년(823)에 朱慶餘와 賈島, 顧非熊, 無可上人 등은 姚合의 집에서 함께 시를 논하면서 「與賈島顧非熊無可上人宿萬年姚少府宅」一首를 통해 “밤새도록 앉아 있는 것에 싫증을 느끼지 않나니, 가난한 중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움이라. 집은 비어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고, 등불은 소리를 내며 꺼져 가누나.(莫厭通宵坐, 貧中會聚難. 堂虛雪氣入, 燈在漏

여금 내면의 고뇌를 동반하게 하였으니 그가 개인의 심리를 표출한 시가에 소슬한 기운이 자주 실리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朱慶餘가 옛날 謝靈運을 추억하며 자신의 곤궁한 마음을 투영한 다음 작품을 보자.

「夢謝亭」(사령운의 정자 꿈을 꾸고)

夢後何人見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어떤 이가 보이는가  
 孤亭似舊時 외로운 정자만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네  
 褰開誠得地 정자는 실로 좋은 땅 위에 펼쳐져 있건만  
 冥感竟因詩 신령한 감응을 얻게 됨은 필경 시로 인한 것이라  
 不往過應少 꿈속에서 그 곳에 가지 않았다면 허물이 응당 적었을 것인데  
 悲來下獨遲 슬픈 마음이 드니 내려오는 것이 유독 더디다  
 顧慚非謝客 스스로 돌아보고 사객이 아님을 부끄러워하나니  
 靈貺杳難追 그의 신령한 기운은 아득하여 따라가기 어려워서라

시를 짓는 것이 어려워 옛 시인을 추억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깨고 난 후에도 아득함을 느껴 회한이 절로 마음에 일어난다. 謝靈運의 정자를 꿈속에서 추억함에 있어 정자의 형상만 또렷하고 사령운의 영감은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4구 ‘冥感竟因詩’에 나타나 있다. 시를 짓는 고뇌가 그만큼 컸음을 고백한 것인데 한편으로 시가를 창작하는 것은 문장을 통해 관직에 들어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현실에서 얻은 아득한 정회를 어찌할 수 없어 ‘悲來’, ‘顧慚’, ‘難追’ 등의 시어로 표현하였다. 시인의 현실과 마음이 소슬한 경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賈島 등 일련의 시인들이 ‘苦吟’을 추구하며 작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았던 것과 의식을 같이 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聲殘.)”라고 하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관직을 향한 길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朱慶餘 역시 이들과 어울리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朱慶餘가 창작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슬회한 작품을 한 수 더 살펴보기로 한다.

「自述」(자술)

詩人甘寂寞 시인은 실로 적막하여  
 居處遍蒼苔 거처에는 온통 푸른 이끼뿐이다  
 後夜蟾光滿 늦은 밤 달빛이 그득하고  
 鄰家樹影來 이웃집 나무 그림자 비쳐 온다  
 豈知蓮帳好 연꽃은 휘둘러 있어 좋음을 어찌 아는지  
 自愛草堂開 초당 앞에 피어 있어 스스로 아낀다  
 願答相思意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지닌 연꽃에 답하기 원하지만  
 援毫愧不才 붓 들어봐도 글재주 없어 부끄러울 뿐이라

자신의 집에는 이끼만 잔뜩 끼어있어 달빛만 그득 할 뿐이며 이웃집 나무를 묘사할 만큼 자신은 소유한 바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초당 앞에 피어 있는 연꽃을 보면서 시인은 ‘연꽃(蓮)’이 주는 ‘그리움(戀)’을 연상해보지만 이것마저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속내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인이 처한 환경과 가진 것 없는 신세를 전반부에서 드러내는데 이어 그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한계의식을 후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세상을 향한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잘 표현해 낼 수 없는 답답한 심정과 무능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朱慶餘의 작품 중에는 은유적인 필법으로 자신의 의식을 표출해낸 시가도 있다. 궁녀의 원망과 한을 읊은 宮怨詩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답답한 소회를 펼쳐내고자 한 다음 작품이 그 예이다.

「宮詞」(궁사)

寂寂花時閉院門 꽃피는 시절이나 정원의 문은 적막하게 닫혀있고

美人相並立瓊軒 미인들은 서로 마주하며 화려한 처마 밑에 서 있다  
 含情欲說宮中事 정을 품거나 말하고픈 궁중의 일들 있어도  
 鸚鵡前頭不敢言 앵무새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누나

봄꽃이 개화하는 화창한 시절이 왔건만 정원으로 향하는 문은 닫혀있고 궁녀들은 궁궐에 갇힌 신세로 처마 밑에 서 있을 뿐이다. 마음속에는 그간의 궁중생활에서 기인한 감회나 새롭게 이는 춘심을 담고 있지만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앞에 있으니 혹여 내 생각이 남에게 전해질까 두려워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과 답답한 현실을 짧은 절구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욕구와 제약 사이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자 하였다.<sup>7)</sup>

다음 작품을 보면 마음 둘 곳 없이 어딘가를 여행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여행을 하는 중에도 현실의 한계가 주는 비애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행간 속에 담아 놓았다.

「旅中秋月有懷」(여행하다 추석 달을 보고 감회에 젖어)  
 久客未還鄉 오랫동안 객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다가

7) 이 시에 대하여는 俞陞雲이 『詩境淺說續編』에서 “이 시는 궁중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으로 세상에 칭해질 만하다. 무릇 궁원시란 대개 홀로 있는 근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는 다행히 마음이 맞는 이를 만나 속뜻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앵무새가 앞에 있는 것을 살피고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멈추고 고운 얼굴을 담은 것이다. 온통 공허하고 그윽한 원망을 품고 있어 궁중의 비밀스러운 사정에는 적합하나 세간에서는 능히 상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此詩善寫宮人心事, 宜爲世所稱, 凡寫宮怨者, 皆言獨處含愁. 此則幸逢采伴, 正堪一訴衷情, 奈鸚鵡當前, 欲言又止, 對鎖蛾眉. 一腔幽怨. 宜宮中事秘, 世莫能詳矣.)”라고 평한 것을 비롯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잘 전하고 있다고 본 제가의 평이 다수 있다. 한편 沈德潛는 『說詩晬語』에서 “시 중에는 당시에 칭송을 받으나 품격이 귀하지 못한 것이 있다. … 朱慶餘의 ‘鸚鵡 앞이라 감히 말하지 못 한다네’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이는 섬세하고 작은 표현을 가한 부류인 것이다.(詩有當時盛稱而品不貴者 …… 朱慶餘之‘鸚鵡前頭不敢言’. 此纖小派也.)”라는 평가를 가하고 있어 이 시에 대한 포폄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秋倍可傷 추석 달을 보니 슬픔이 배가 되네  
 暮天飛旅雁 가을 하늘에는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故國在衡陽 나의 옛 고향은 형양에 있구나  
 島外歸雲迥 섬 너머로는 돌아가는 구름이 아득하고  
 林間墜葉黃 숲 사이에는 누런 잎이 떨어지네  
 數宵千里夢 천 리 먼 꿈을 꾸 밤이 그 몇 날 이던가  
 時見舊書堂 때때로 옛날 공부하던 집이 눈에 번득이나니

시인이 여행하던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시가의 내용을 통해 타향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客愁를 느끼게 된 감회가 절절히 배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함연에서 故國을 湖南省 ‘衡陽’이라 한 것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의 귀착점을 말하는 것인지 자신이나 누군가의 귀향처를 언급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으며 아득히 먼 곳을 형용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경연에서 ‘돌아가는 구름이 아득하고(歸雲迥)’, ‘떨어지는 잎이 누렇다(墜葉黃)’라는 표현을 통해 기약 없는 자신의 신세를 은유한 부분이 여운을 준다. 마음 둘 곳 없이 객지를 떠도는 시인의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 작품 역시 樂府詩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예가 된다.

「行路難」(행로난)

世事澆浮後 세상사에서 경박함을 겪은 후에  
 艱難向此生 어려움이 내 삶을 향해 들어왔다  
 人心不自足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족함이 없거늘  
 公道爲誰平 공정한 도리는 그 누구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  
 德喪淳風盡 덕이 쇠하여지고 따듯한 바람이 다하니  
 年荒蔓草盈 한 해 흉년이 들어 넝쿨풀만 그득하다  
 堪悲山下路 슬픔을 감내하며 산 아래 길로 향하는데

非只客中行 이는 단지 나그네 행로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시인이 어떤 환경 하에서 이 작품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함연의 “공정한 도리는 그 누구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公道爲誰平)”라는 구절을 통해 공정한 도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한탄 혹은 관직 혹은 세상에서 득의하지 못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경연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연유가 ‘덕이 쇠하여지고 후덕한 바람이 다했기(德喪淳風盡)’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는데다 누군가의 도움도 없으므로 고난 속에 처하고 있다는 암시도 담았다. 세상사의 경박함을 논한 수구에 이어 가한 언급이기에 세상에 대한 분개를 담고 있음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연에서 “비단 객의 여행길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다(非只客中行)”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고난이 “여행길에서의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몇 수의 시를 통해 朱慶餘가 개인의 비감을 기술한 작품 속에는 비애감 속에 자조 섞인 소슬한 기운이 상당부분 투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朱慶餘가 살았던 中唐에서 晚唐에 이르는 기간은 唐王朝가 쇠락해가는 과정에 있던 시기로 조정의 부패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인들이 상실감을 갖고 곤궁함 속에서 살아가던 시기였다. 朱慶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각지를 표류하며 많은 회한을 안고 살아갔으니 그가 창작을 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신한 풍격을 지향했다 해도 개인의 서정을 슬회한 시가에서는 비애감과 소산한 기운을 떨쳐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朱慶餘가 일신의 서정이나 심리를 서술한 詠懷詩 계통의 시가들은 비록 사회적 반향을 촉구하는 현실비판의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거나 賈島 식의 ‘분감의 표출’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朱慶餘 개인의 비감을 진솔하게 표출해내어 당시 문인의 심리를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 2. 진솔한 교류를 통한 우정의 가창

朱慶餘는 비록 관직에서 득의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는 詩名이 있었고 당대 유명시인들과도 많은 교분을 나누었던 시인임을 각종 문헌이나 시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활발한 창작을 했던 穆宗 長慶 연간에서 敬宗 寶歷 元년에 이르는 시기에 사귀어 이는 張籍, 賈島, 姚合을 위시하여 無可, 顧非熊, 李餘, 章孝標, 白居易, 王建, 令狐楚, 蔣防 등 많은 문인들이 있다. 그의 시가 중 交友, 酬贈, 送別의 내용을 담은 작품이 총 94수에 달해 전체 시 177수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많다는 점도 그가 여러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또한 朱慶餘가 교유관계를 표현한 시가를 보면 순전하고 진솔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중시하면서 세밀한 필치를 통해 世事에서 느끼는 감정의 조각들을 잘 묘사한 것이 포착된다. 본 절에서는 朱慶餘가 여러 문인들과 교류한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우정의식과 교유시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朱慶餘는 여러 시인 중 특히 張籍과 깊은 교분을 나눈바 있다. 그 중 인구에 회자되는 시로 꼽히는 다음 작품을 보면 朱慶餘가 갓 결혼한 신부에 빗대어 과거를 앞둔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를 물어봄으로써 창작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발견된다.

「閨意獻張水部」(규방 여인의 마음으로 장수부에게 드림)

洞房昨夜停紅燭 어젯밤 신방에서의 촛불은 꺼져 있는데  
待曉堂前拜舅姑 새벽을 기다려 방문 앞에서 시부모께 인사 올린다  
妝罷低聲問夫婿 화장을 마치고 나직이 소리 내어 남편에게  
畫眉深淺入時無 눈썹 화장의 농도가 유행에 맞는지 물어본다네

첫 구에 나온 ‘신방(洞房)’<sup>8)</sup>을 통해 갓 시집온 색시가 아직 무언가 잘 몰라

8) 시구에 나온 ‘洞房’은 신혼부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신방을 의미한다. 일찍이 西晉의 陸

떨리는 심정을 지닌 것처럼 시인의 마음 역시 긴장 속에서 어떠한 답을 바라  
고 있음을 은유하였다. ‘화장이 과하였다(妝罷)’라는 표현은 자신이 글을 썼음  
을 비유한 것이고 ‘남편에게 묻는다(問夫婿)’라는 표현은 張籍에게 자문을 구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 된다. 말구의 ‘深淺’은 글의 숨씨나 문장의 깊이  
등을 표현한 것이며 ‘入時’라는 표현을 통해 객관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은유하고 있다. 이 시를 받은 張籍은 그의 작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바 있고<sup>9)</sup> 朱慶餘는 寶歷 2년(826)에 결국 進士에 급  
제하게 된다.

機가 「君子有所思行」에서 “홀륭하고 고귀한 침실, 신방을 누각으로 삼는다네.(甲等高  
閣, 洞房結阿閣.)”라고 하였거나 北周의 庾信이 「三和詠舞詩」에서 “신방에 화촉을 밝히  
니, 제비 한 쌍이 춤 춘 것처럼 가볍도다.(洞房花燭明, 舞餘雙燕輕.)”라고 한 구절을 통  
해 신방을 ‘洞房’으로 부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阿房宮의 미녀 三  
姑娘이 秦始皇의 폭정을 피해 華山으로 숨어들었다가 焚書坑儒를 피해 온 沈博이라는  
서생과 만나 천지신명을 주례로 혼례를 올린 후 바위 아래에 있는 ‘洞房’을 신방으로  
삼아 첫 날밤을 보낸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다.

- 9) 張籍이 朱慶餘의 이 시에 대해 답한 시 「酬朱慶餘」는 다음과 같다. “越 땅의 미녀 새로  
이 화장하고 거울을 떠나는 마음, 스스로 아름다운 것 알지만 다시 나직히 읊조리네.  
齊地의 비단옷 입은 것 다른 이가 귀한 줄 모르나, 採菱歌 한 곡조의 노래는 만금에  
해당한다네.(越女新粧出鏡心, 自知明艷更沈吟. 齊紈未是人間貴, 一曲菱歌敵萬金.)” 張籍은  
朱慶餘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計有功의 『唐詩紀  
事』 卷6 : “朱慶餘는 수부낭중 張籍과 만나 서로 지음으로 지냈는데 朱慶餘의 친구편  
작품을 찾아 시 열 편과 이십 육장을 남겨 소매 폭에 품고 다니며 이를 추천했다. 당  
시 사람들은 장적의 이름을 중히 여겼기에 모두 손보아 기록하고 읊어댔으며 마침내  
급제하게 되었다. 주경여가 「閨意」에서 ‘어젯밤 신방에서의 촛불은 꺼져 있는데, 새벽  
을 기다려 방문 앞에서 시부모께 인사 올린다. 화장을 마치고 나직이 소리 내어 남편  
에게, 눈썹 화장의 농도가 유행에 맞는지 물어본다네.’라고 하니, 장적은 이에 화답하  
여 ‘越 땅의 미녀 새로이 화장하고 거울을 떠나는 마음, 스스로 아름다운 것 알지만  
다시 나직이 읊조리네. 齊地의 費단옷 입은 것 다른 이가 귀한 줄 모르나, 採菱歌 한  
곡조의 노래는 만금에 해당한다네.’라 하였다. 이를 통해 주경여의 이름이 나라 안에  
두루 유행하게 되었다.(慶餘遇水部郎中張籍知音, 索慶餘新舊篇什, 留二十六章, 置之懷袖  
而推贊之. 時人以籍重名, 皆繕錄諷詠, 遂登科. 慶餘作「閨意」一篇以獻曰: ‘洞房昨夜停紅燭,  
待曉堂前拜舅姑. 妝罷低聲問夫婿, 畫眉深淺入時無.’ 籍酬之曰: ‘越女新粧出鏡心, 自知明艷  
更沈吟. 齊紈未足門人貴, 一曲菱歌敵萬金.’ 由是朱之詩名流於海內矣.)” 등의 기록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朱慶餘가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친구 賈島와 함께 鳳翔西池를 찾아 노닐면서 우정을 노래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鳳翔西池與賈島納涼」(鳳翔西池에서 가도와 함께 더위를 식히며)  
 四面無炎氣 사방에 더운 기운 없고  
 清池闊復深 맑은 못은 넓게 트인 채 깊구나  
 蝶飛逢草住 나비는 날다가 풀을 만나 내려앉고  
 魚戲見人沈 물고기는 놀다가 사람을 보고 가라앉는다  
 拂石安茶器 돌 위를 쓸어내고 다기를 안정하고는  
 移牀選樹陰 상을 옮겨 나무 그늘을 골라 앉는다  
 幾回同到此 몇 번이나 함께 이곳에 와서  
 盡日得閑吟 종일토록 한가롭게 읊조릴 수 있을까

더운 날 賈島와 함께 못가에서 더위를 식혀보니 넓게 펼쳐진 못의 경치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준다.<sup>10)</sup> 날아들다 풀에 앉은 나비와 물속으로 가라앉는 물고기를 통해 평안함과 한가로움 속에 침잠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은유하였고, 나무와 바위를 편하게 활용하고 그늘을 향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마시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한아한 시심을 한껏 펼치고 있다. 미연에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한가한 서정과 흥취가 귀하게 느껴질수록 그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과 우정에 대해 순수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江陵으로 여행하는 崔秀才를 송별하며 쓴 다음 작품을 보면 친구가 좋은 기운 속에 여로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이 보인다.

「送崔秀才遊江陵」(최수재가 강릉으로 유람하는 것을 송별하며)

10) 시제의 '鳳翔'은 현재의 陝西 鳳翔縣을 의미한다. 傅璇琮의 『唐五代文學編年史』(遼海出版社, 1998. 12.)에서는 이 시에 대해 “朱慶餘가 唐 穆宗 長慶 元年 여름에 賈島와 함께 鳳翔에서 노닐었다.(朱慶餘約于唐穆宗長慶元年夏與賈島同游鳳翔.)”라는 해설을 가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樽前荊楚客 술잔을 앞에 놓은 楚 땅으로 떠나는 객이여  
 雲外思榮廻 저 하늘 밖까지 그리움이 맴돌겠구려  
 秦野春已盡 秦 땅의 들녘에는 봄이 다하였지만  
 商山花正開 商山에는 지금 꽃이 한창 피어있겠지?  
 鷗鷺帆乍起 돛이 언뜻 솟구치니 백구들은 놀라 날아가고  
 虹見雨初來 비가 처음 내리니 무지개가 보이누나  
 自有歸期在 돌아갈 기약일랑 본래 있었던 것이지만  
 蟬聲處處催 매미 소리가 곳곳에서 재촉을 하는구나

秦 땅의 들녘에는 봄이 다하였지만 최수재가 지나가는 商山에는 지금쯤 꽃이 한참 피어있으리라는 언급을 통해 떠나는 이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은 외지를 전전하다 또 다른 객지를 향해 떠나는 이의 고독한 마음과 고민을 씻어주기 위한 시인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연 정경을 동원하면서 담담하고도 평이한 기술을 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은 정은 실로 깊고도 따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자연 묘사와 우정을 잘 결합하여 서정을 펼쳐낸 작품의 예라 하겠다.

朱慶餘가 鳳翔을 떠나다가 문득 知友를 생각하게 된 장면을 그린 다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發鳳翔後途中懷田少府」(봉상을 출발하던 중 田少府를 생각하며)  
 識君春未半 그대를 알고 봄이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意欲住經秋 생각 같아서는 이곳에 머무르며 가을을 보내고 싶었네  
 見酒連詩句 술을 보면 시구가 연이어졌고  
 逢花跋馬頭 꽃을 만나면 말 머리를 멈추었었지  
 別來唯獨宿 이별하게 되니 그저 홀로 유숙하게 되었고  
 夢里尙同遊 꿈속에서나 함께 노닐 수 있게 되었구려  
 所在求飧過 있는 곳에서 식사나 잘하고 지내실 뿐

無因離得愁 이별로 인한 근심일랑 하지 마시게나

鳳翔을 출발하다가 문득 함께 술 마시고 꽃을 감상하던 田少府를 생각하게 되자 이별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이 섭섭함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술과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 그간의 우정을 담담하게 서사했으나 ‘唯獨宿’ 표현을 통해 이별로 인한 아쉬움이 상당함을 암시하고 있다. 미연에서도 헤어지는 마음과 앞으로의 바람을 담백한 표현 속에 담아보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역시 심오하다. “이별로 인한 근심일랑 하지 마시게(無因離得愁)”라는 표현은 이 순간 이별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재회의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내포한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知己 任處士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가면서 친구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소회와 그를 향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 다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題任處士幽居」(임처사의 은거지에서 쓰다)

惜與幽人別 은거하는 이와 이별을 아쉬워하나니  
 停舟對草堂 배 멈추고 초당을 마주해 본다  
 湖雲侵臥位 호수의 구름은 그대의 자리 위로 차오르고  
 杉露滴茶牀 삼나무에 내린 이슬은 다상에도 떨어지누나  
 山月吟時在 산 위에 뜬 달을 읊었던 시간도 있었고  
 池花覺後香 못가에 핀 꽃에서 뒤늦은 향기를 느끼기도 했었지  
 生涯無一物 평생 물건 하나 지니지 못하는 신세이니  
 誰與讀書糧 그 누가 독서할 양식을 줄 것인가

소속을 떨리한 채 자연과 벗하는 삶을 소박하게 그렸는데 그 속에는 소슬한 기운도 언뜻 스쳐가고 있다. 한거하는 생활이 멋있기는 해도 본격적으로 은일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연에서 ‘無一物’과 ‘讀書糧’이라는 시어를 표현한 것은 한가한

삶을 사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은거의 삶이 흥취를 지닌 것이기는 해도 실제 은거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살펴본 몇 수의 작품을 통해 朱慶餘가 우정을 노래한 작품들은 담백하고 순수한 필법으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담긴 우정을 잘 표현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에 오르지 못한 채 객지를 진전하며 비애감 속에 살아갔던 朱慶餘였지만 우정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지음에 있어서는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진실한 정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또한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송별의 순간’ 같은 비애감이 그득한 상황이라면 자연을 주요 제재와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감정의 순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일면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朱慶餘가 인간 사이의 정을 ‘自然’이라는 배경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불변의 존재 같은 자연처럼 참된 우정을 나누고자 했던 朱慶餘 자신의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3. 유람을 통한 한아한 흥취의 고양

朱慶餘의 고향 越州는 경치가 뛰어난 곳이며 농업과 제지, 비단, 자기, 차 등의 각종 산업을 근간으로 한 ‘士族文化’가 흥성하였고 佛道家의 활동도 빈번했던 강남 문화의 거점이었다.<sup>11)</sup> 강남 산수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11) 이전의 시인들 중에서도 越州의 뛰어난 경치를 주목한 이가 많았다. 宋之問은 「泛鏡湖南溪」에서 南溪(鏡湖의 지류로서 紹興縣 남쪽 三리에 위치)의 겨울 풍경에 대해 “흥취 속에 그윽한 곳으로 들어가니, 배가 지나가매 해는 낮게 깔리누나. 바위 위에 눈꽃 겨울이라 피어나고, 계곡의 새는 봄을 노래한다. 솟아오른 산으로 하늘은 작게 펼쳐졌고, 무리진 대나무 속에 좁은 길 희미하네. 마치 애뜻한 곳이라고 들은 것처럼, 또 다시 若耶溪에 이르러 있다.(乘興入幽棲, 舟行日向低. 岩花候冬發, 谷鳥作春啼. 沓嶂開天小, 叢篁夾路迷. 猶聞可憐處, 更在若耶溪.)”라고 칭송한 바 있고, 白居易는 「沃洲山禪院記」에서 “동남의 산수 중 越州가 으뜸인데 剡州는 얼굴, 沃洲와 天姥는 눈과 눈썹에 해당한다.(東南山水, 越爲首, 剡爲面, 沃洲、天姥爲眉目.)”라는 평을 통해 越州의 아름다움을 찬탄한 바 있다.



성장한 朱慶餘였기에 그는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의식과 흥취를 소유하며 살았을 것이며 타지를 전전하는 삶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고향과 같은 자연 서정을 늘 간직하는 여유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朱慶餘의 작품 중 寫景詩, 行旅詩, 閑寂詩, 詠物詩 등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연계된 감흥이나 한가로운 흥취를 노래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는 약 44수에 달하고 있다. 전체 작품 중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분량이니 朱慶餘 시의 주요 제재라 할 수 있다. 朱慶餘가 한아한 시흥을 고양하면서 생활의 여유나 자연 속 흥취를 도모한 작품들은 청려한 표현 속에 진실한 감흥을 담는데 주력하고 있어 읽을 때 신선한 인상을 얻게 되고 뒷맛도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개인의 비감이나 감회를 서사한 영회시 계통의 작품들이 소슬하고 침울한 풍격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자연 속에서 한아한 흥취를 추구한 작품들은 한층 한적하고 고아한 기운을 발하고 있음이 대조를 이루는 점이라 할 것이다. 몇 수의 작품을 통해 朱慶餘가 유람을 통해 한적한 서정을 추구했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朱慶餘가 그의 고향 越州의 南湖를 한아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을 살펴보자.

「南湖」(남호)

|         |                            |
|---------|----------------------------|
| 湖上微風小檻涼 | 호수에 미풍 불어 작은 난간 차가운데       |
| 翻翻菱荇滿回塘 | 펼러이는 마름 풀은 제방에 그득 둘러 있네    |
| 野船着岸入春草 | 들녘의 배는 호숫가 따라 봄풀 사이로 들어가는데 |
| 水鳥帶波飛夕陽 | 물새는 물결 일렁이며 석양에 날아든다       |
| 蘆葉有聲疑露雨 | 갈대 앞에는 이슬비 내리는 듯한 소리 일고    |
| 浪花無際似瀟湘 | 포말은 끝없이 일렁여 마치 瀟湘江에 온 듯    |
| 飄然蓬艇東歸客 | 아득한 쪽배 타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객은     |
| 盡日相看憶楚鄉 | 하루 종일 경치를 마주하며 楚 땅을 그리나니   |

배를 타고 호수를 돌며 봄풀, 물새, 석양, 갈대 등이 연출하는 주변정경과 소리를 감상하며 자신만의 흥취를 얻고 있다. 越州의 南湖를 한가롭게 유람하던 시인은 문득 동정호를 유람하며 九疑山을 바라보던 추억을 떠올린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楚 땅을 다시금 그리워하는(憶楚鄉)’ 장면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그 속에서 끝없이 위안을 추구했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빼어난 越州의 풍광을 통한 아름다운 훈도를 경험한 朱慶餘였기에 자신의 성정을 한층 더 도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朱慶餘의 시가 동시기 賈島의 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격분의 정이 적었던 것은 越州와 같은 아름다운 환경의 영향을 받은 덕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되는 것이다.

봄에 시내에 배 띄우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낙을 그린 작품을 예거해 본다. 밝고 청신한 필치로 인해 산뜻한 새봄의 기운이 배가된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된다.

「泛溪」(시내에 배 띄우고)

曲渚回花舫 굽이친 시내 언저리 따라 꽃배 돌아가는데  
 生衣臥向風 얇은 옷 입고 누워 바람을 마주한다  
 鳥飛溪色裏 새들은 날아 시내 경치 속으로 들어가고  
 人語櫂聲中 말소리는 노 젓는 소리 속에 섞여버렸네  
 餘卉纔分影 무성하게 자라난 풀은 비로소 형태가 구분되고  
 新蒲自作叢 새롭게 난 부들은 절로 무리를 이루었구나  
 前灣更幽絕 앞으로 이어진 만은 더욱 그윽하고 절묘하여  
 雖淺去猶通 비록 수심이 얕아진다 해도 지나가기는 더욱 순통하나니

봄 시내에 배를 띄우고 유람하는 형상을 그린 작품으로 생동하는 표현과 청아한 필치로 한아한 멋을 한껏 돋우고 있는 것이 보인다. 굽이친 만 따라 아름다운 꽃배가 흘러가고 그 속에서 목도되는 새들의 비상과 새롭게 자라난 풀들의 모습은 새롭게 이는 작자의 흥취를 대변하는 듯하다. 함연의 “말소리

가 노 젓는 소리 속에 섞여버렸다(人語櫂聲中)”는 표현에서는 인간세상보다 자연의 모습에 더욱 경도된 시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미연에서는 한껏 고무된 흥취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그윽하고 절묘한 경치를 느끼게 되며 얕은 수심을 지나가도 ‘더욱 순통하다(猶通)’는 느낌을 얻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을 좋아하고 한가로운 흥취를 추구하던 시인은 어느덧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은거의 삶을 연상하게 된다. 옛 동산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陶淵明의 삶과 대비한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歸故園」(옛 동산으로 돌아가며)

桑柘駢闐數畝間    뽕나무와 산뽕나무 몇 묘에 걸쳐 나란히 무성하고  
 門前五柳正堪攀    문 앞에는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가지를 잘 뻗치고 있다  
 樽中美酒長須滿    술잔에는 맛난 술이 오랫동안 필시 그득하리니  
 身外浮名總是閑    어울리지 않는 헛된 이름에서 종래 한가롭다  
 竹徑有時風爲掃    대나무 길에는 때때로 바람이 휩쓸고 갈 뿐  
 柴門無事日常關    사립문은 하릴 없이 종일 잠겨 있다  
 於焉已是忘機地    이곳에서는 이미 소욕을 잊은 담백한 경지에 있으니  
 何用將金別買山    어찌 황금을 들여서 별도의 산을 산다 하겠는가

수연에서 뽕나무와 버드나무를 소재로 채택함으로써 옛날 陶淵明이 한거하며 집 앞에 버드나무를 심고 뽕나무 농사를 지었던 일화를 연상하게 하였다. 맛난 술을 즐기는 낙을 설파하면서 ‘柴門’을 통해 청빈하게 살면서 찾는 이도 별로 없는 한적함을 표현하였다. 세속의 기교와 헛된 명성을 멀리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한거이며 한가한 삶을 위한 별도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임을 ‘忘機’, ‘買山’ 등의 표현<sup>12)</sup>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歸去來辭」의 감흥을 재현하

12) ‘忘機’는 “어떠한 마음의 계략이 없으며 담백하고 소욕이 없는 경지(不存心機, 淡泊無爭.)”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李白, 「중남산을 내려오다 곡사산인의 집에서 머물며 술

고자 하는 노력을 행하고 있는 느낌인 것이다.

朱慶餘의 시를 보면 아름다운 강남 산수나 주변 자연의 모습에서 순수한 흥취를 얻은 기쁨을 묘사한 것이 많은 편이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연 정경이 제공하는 미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한 다음 작품을 일례로 들 수 있다.

「看濤」(파도를 바라보며)

不知來遠近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인지 먼 곳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고  
但見白峨峨 그저 하얗게 높이 솟구치는 파도만 보게 되는 구나  
風雨驅寒玉 비바람 치듯 차가운 구슬방울이 들이 닥치고  
魚龍迸上波 물고기와 용이 흩어져 물결 위로 솟아오르는 듯  
聲長勢未盡 큰 소리 오래 이어지고 그 세력은 끝이 없구나  
曉去夕還過 그러는 중에 새벽이 가고 저녁이 또 지나가네  
要路橫天塹 중요한 길들이 이 거대한 수로를 가로지르게 되나니  
其如造化何 그 조화로운 경지가 어찌 이와도 같을까

파도가 일렁이는 경이로운 정경을 포착하여 ‘높이 솟구친다(峨峨)’<sup>13)</sup>라는 거대한 느낌을 주는 어휘로 잘 표현하였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물결 위로 솟아오르는 물고기의 모습을 유미적인 필치로 선명하게 부각시킨 것도 돋보인다. 시가의 후반부에서는 거대한 세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의 무한한 형상과 인간이 나아가는 길이 자연 앞에서 무력하게 막힐 수 있음을 시사하면

마시다 쓴 시(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詩) : “나는 취하고 그대 역시 즐거우니, 마음이 넓어지고 어떠한 소욕을 잊게 되는 구료.(我醉君復樂, 陶然共忘機.)” 구절의 표현을 참조할 수 있다. ‘買山’에 대하여는 『世說新語·排調』에 “支道林이 深公에게 가서 산을 사겠다고 하니 深公이 답하길 ‘소부와 허유가 산을 사서 귀유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라고 하였다.(支道林因人就深公買印山. 深公答曰: ‘未聞巢、由買山而隱.’)”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후로 ‘買山’이라는 말은 ‘歸隱’을 뜻하는 표현이 되고 있다.

13) ‘높이 솟구친다(峨峨)’라는 표현은 『楚辭』「招魂」편에서 宋玉이 “얼음이 더하며 높이 솟구치니, 눈발이 천 리까지 흩날리네.(增冰峨峨, 飛雪千里.)”라고 한 것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서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에 압도된 시인의 감회가 과장스러운 필치 속에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작품이 거대한 스케일을 지닌 자연을 노래했다면 다음 예거하는 詠物詩에서는 한 포기 장미꽃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장미가 지닌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 대조된다.

「題薔薇花」(장미꽃을 노래하다)

四面垂條密 사면으로 드리운 장미의 가지 뻣뻣한데  
 浮陰入夏清 뜬 구름도 들어가 있어 여름을 맑게 만드네  
 綠攢傷手刺 초록빛 무더기는 손을 상하게 하는 가시를 지녔는데  
 紅墮斷腸英 붉게 떨어지며 애간장 끊게 하는 꽃잎도 지녔구나  
 粉着蜂鬚膩 꽃가루 묻히니 벌은 수염이 윤기 나고  
 光凝蝶翅明 햇살과 응어리지니 나비의 날개는 맑게 빛난다  
 雨中看亦好 빗속에 감상해도 역시 좋건만  
 況復值初晴 하물며 막 개인 날씨에 다시 대하는 즐거움이라

장미가 피어난 모습은 풍성한 감성 뿐 아니라 여름의 청아한 흥취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장미의 모습에 반한 시인은 손이 가시에 찢리는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붉은 꽃잎의 조락이 주는 애절한 의미를 깊이 추구하고 있다. 경연에서는 장미에 날아드는 벌과 나비의 모습을 세밀하면서도 맑게 묘사함으로써 시인이 느낀 남다른 흥취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미연에서 비나 햇살 등 날씨에 상관없이 장미가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이 꽃이 지닌 매력이 그만큼 지대한 것임을 드러낸 부분이다. 장미의 자태와 주변의 정경, 이를 대하는 시인의 흥취를 순차적으로 잘 나열하며 묘사한 것이 발견된다.

朱慶餘가 한아한 시흥을 고양하게 된 것은 그의 고향 越州를 비롯한 강남 산수에서 영감을 얻은 것과 지대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朱慶餘가 한적한 흥취를 표현한 시가를 들어 盛唐 王孟의 작품과 같은 淸明하고 閑雅한 풍격

을 지닌 시가와 동등한 반열에 놓고 평할 수는 없지만 中唐에서 晚唐으로 시기에 지어진 여타 시인의 자연시나 행유시가 ‘沈鬱悲壯’한 풍격을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시가 상대적으로 명량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朱慶餘가 자연을 묘사할 때 과도한 禪趣나 哲理를 이입하여 탈속의 정취를 과시하기보다는 자연 본연에 대한 미감의 묘사에 충실했거나 그 속에서 느끼는 한적한 기운을 묘사하는 것에 더욱 치중했던 연유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朱慶餘는 仕途가 불운한 인물이었기에 마음 한 편에 비애감을 간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일생이나 작품을 통해 생각해 볼 때 개성의 구속을 떨리한 채 자연을 감상하는 한적한 경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中唐의 여느 문인들처럼 현실에 대한 집착과 한적한 삶에 대한 의식을 동시에 소유하며 살아갔지만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더욱 추구하고자 했던 의식이 더욱 강렬했던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결어

『全唐詩』에 실린 朱慶餘의 시는 168題 177首에 달하는데 이 시들을 주제와 관련하여 분류해보면 개인이 지녔던 비애감이나 고뇌,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우정의 서사, 한아한 필치로 자연을 추구하거나 한거의 흥취를 서술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慶餘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식을 발휘하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비애감이나 고뇌를 토로한 작들을 통해 中唐 문인의 안고 살아가야 했던 개인의 비감을 진솔하게 표현한 면이 있으며, 많은 문우들과 교분을 나누며 그들 사이의 정을 ‘自然’이라는 배경 속에 순전한 필치로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여 진실한 우정을 추구하기도 하였고, 강남 산수에서 영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한층 청신하고 명량한 기운을 지닌 자연묘사를 이루어 낸 문인이었다. 전고나

고사를 활용한 함축적 표현이나 축소된 자연을 세미하게 묘사했던 동시기 여타 시인들의 창작 면모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朱慶餘는 동시기에 살았던 유파 문인들과 교분을 나누기는 했지만 어느 한 쪽의 창작방향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특별한 부각을 나타내지도 못했던 문인이었다. 깊은 현실의식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거나 특별한 시풍을 구사하는 능력을 보인 시인은 아니었기에 그간 문학사에서 높은 주목과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비애감을 나름대로 표출하면서 타인들과 늘 교류하며 창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朱慶餘 역시 中唐의 군소문인 중 일인으로서 中唐에서 晚唐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자신의 신세 역시 불운한 상태에 있던 문인이었으나 개인의 서정을 진솔하게 서술한다거나 ‘淸麗’하고 ‘淸新’한 의경을 찾고 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노력을 가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朱慶餘 같은 개인 문인의 일상을 주목하고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中唐 문인의 특성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79.
- 歐陽脩,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傅璇琮,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 高 棅, 『唐詩品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9.
- 辛文房 『唐才子傳』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年
- 許 總 『唐詩史』(上·下) 江蘇教育出版社, 1995年 3月 2版
- 吳庚舜 董乃斌 主編 『唐代文學史』(上·下) 人民文學出版社, 1995. 12.
- 章尚正, 『中國山水文學研究』, 北京: 學林出版社, 1997. 9.
- 施蟄存 『唐詩百話』 上海古籍出版社, 1987年 9月 1版
-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제5권.
- 肖占鵬, 『韓孟詩派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9. 6.
- 劉海利, 「論韓孟詩派的產生及其詩歌藝術風格」, 焦作: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2009. 제1기.
- 孟二冬, 「論中唐詩人審美心態與詩歌意境的變化」, 文史哲, 1991. 5.
- 郭育豐, 「朱慶餘詩歌研究」, 新疆師範大學碩士論文, 2006. 4.



## Abstract

### A Study on the Zhu-Qingyu's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on the aspects of the *Zhu-Qingyu*(朱慶餘)'s poetry. *Zhu-Qingyu*(朱慶餘) is one of the poets of Middle Tang Dynasty. There are a few articles on *Zhu-Qingyu*(朱慶餘)'s poems by now, but his poems have important content which can show distinct feature and style of Middle Tang Dynasty. The aspects of *Zhu-Qingyu*(朱慶餘)'s poetry can b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Zhu-Qingyu*(朱慶餘)'s poetry basically contained the sense of sorrow about social aspect of Middle Tang Dynasty and his own life story. In many part of his poem, he expressed his feelings of sadness, and the feeling make his poem melancholy style. There's a pathos in his poems which he never lets slide into sentimentality.

The second, *Zhu-Qingyu*(朱慶餘) have expressed rich emotion about his friendship by using forthright vocabulary in his poem. That also means he have the intense friendship and aspirations toward people. Forthright vocabulary can provide truthful and emotional spray, so he can pursued more clear and fresh style in his Poetry.

The third, *Zhu-Qingyu*(朱慶餘)'s landscape poetry have clear and fresh style, but in the features of landscape poetry, that also contains inner world in his poetry. Most of poets of Middle Tang Dynasty experienced suffering life which comes from political environment, but his landscape poetry was also a part of the expression of his life, that the expression can be offered his landscape poetry have some of Quiet, Delicacy, Lonesome styles.

**Key words :** *Zhu-Qingyu*, the poem about friendship, landscape poetry, the poetry of *Zhu-Qingyu*, Middle Tang Dynasty, sense of beauty, nature.

투 고 일 : 2017. 7. 10. / 심 사 일 : 2017. 7. 15.~ 2017. 8. 15. / 게재확정일 : 2017. 8. 20.